

사적으로 본 이슬람과 유럽의 관계

Islam and Europe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I. 머리말

이슬람 문명은 자체의 독창적인 요소에다 유럽의 고전·고대기 문명 그리고 이웃 근동 지역의 문화, 특히 종교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이슬람 문명은 역으로 유럽의 종교·학문·과학·기술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유럽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이슬람 세계의 존재가 강력한 추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힘의 우위에 서 있는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 유럽이 적대적인 대결, 즉 전쟁을 계속하는 중세의 역사과정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유럽의 시민·산업 혁명과 제국주의 정책으로 대표되는 근대에 이르러 이슬람 세계는 한낱 유럽의 식민지 지배 대상이 되고 만다. 현재 이 두 세계간의 관계도 바로 이 근대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 것이다.

본고는 위의 사항들에 대한 역사·논리적 맥락을 개관함으로써 이슬람 세계가 유럽에 대해서 갖는 의미 그리고 두 세계간의 관계 구조를 분석·정리하고자 한다.

II. 이슬람세계의 형성·발전과 유럽이념의 등장

1. 이슬람세계의 형성

570년경에 메카에서 태어난 무함마드Muhammad(570-632)가 그의 나이 마흔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Allah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포교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예언자 시절에 무함마드는 자신의 가족들과 주변 지역에서 많은 신도를 얻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슬람교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Islām은 아랍어로 ‘신의 뜻에 복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메카의 지배층으로부터 많은 압력과 박해를 받았다. 왜냐하면 메카의 지배층은 무함마드의 가르침이 그들의 물질적인 기득권과 사회 특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박해를 피해 무함마드는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당시의 야스리브)로 이주하여 이 지역의 탁월한 지도자로 자리를 잡았다. 이슬람교도들은 622년의 이주를 ‘히즈라(Hijra)’라고 부르며 이슬람력의 시발점으로 삼고있다. 곧이어 무함마드는 메카를 포함하는 아라비아 반도 서부 대부분을 정복하고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종교

공동체 움마Umma, 즉 이슬람 국가를 건설했다. 따라서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체계 이상의 것으로 국가, 사회, 법률, 지식 그리고 일상생활을 포괄하는 신도들의 삶의 총체를 관통하는 가치체계이다. 즉, 종교를 핵심으로 하는 하나의 문명체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무함마드는 종교의 창시자이며 동시에 이슬람에 입각한 무슬림 국가 (dawla)의 건국자였다. 이러한 연유로 이슬람 사회는 완고한 정교일치의 사회로 발전해 갔는데, 이는 이슬람문명의 큰 특징이다.¹⁾

움마Umma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함마드는 알라의 계시를 쿠란Qurān이란 성서로 편집하였으며, 이 쿠란을 해석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했다. 이는 그의 언행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그의 사후 200년 안에 쓰여지는 하디스Hadīth로 결정체를 이룬다. 즉,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언행록이다. 무슬림Muslim은 신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 이슬람교도들을 의미한다. 무슬림은 하나님, 천사, 하나님의 말씀(쿠란), 예언자 및 최후의 심판을 믿고 이슬람의 5기둥으로 알려진 종교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5기둥은 신앙고백, 예배, 종교세, 단식, 그리고 순례를 포함한다. 여기에 성전(聖戰 -Jihād)이 추가된다. 이러한 의무와 규율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입각한 종교공동체 움마Umma, 즉 국가를 조직하고 운용하는 기본 바탕으로 기능했다.²⁾

632년 무함마드는 후계자 칼리파(Khalifa)를 선정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아랍부족장들의 선출에 의해 아부바크르Abu Bakr(632-634재위)가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그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아라비아 반도의 동부지역과 시리아 및 이라크 지역을 평정하여 움마에 편입시키면서 이슬람제국의 기틀을 다졌다. 제 2대 칼리파 오마르‘Umar(634-644재위)는 ‘이슬람의 팽창’이라 불리는 정복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이라크-페르시아, 시리아-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지역의 정복으로 나타났다. 그의 뒤를 이은 제 3대 칼리파 오스만‘Uthmān(644-656재위)은 그의 치세에 이루어진 쿠란 정본의 보급을 가장 큰 공적으로 꼽는다. 제 4대 칼리파 알리‘Ali(656-661재위)의 임기를 끝으로 정통칼리프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는 우마위야조의 이슬람제국이 이어진다.³⁾

알라Allah의 계시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죽음(632)과 함께 이슬람교리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그의 후계자들인 칼리프들은 그가 완성한 교리를 집행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만을 가졌을 따름이었다. 이슬람 제국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은 정교일치의 사회원리에 힘입어 세계 종교로서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1) Adel Th. Khoury, *Begegnung mit dem Islam*, Freiburg/Basel/Wien, 1980, p. 31-37; 김정위, *이슬람문화사*, 문학출판사(서울) 1981, p. 103.

2) Adel Th. Khoury, *op. cit.*, p. 66-74.

3) Jeremy Johns, *Christianity and Islam*, in: John McManners (edit.), *The Oxford Illustrated history of Christianity*, Oxford/New York 1990, p. 166-168.

이렇게 무함마드에 의해 창시된 이슬람교는 근본적으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 (로마 가톨릭 그리고 그리스정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배화교)의 토양 위에서 형성되었다. 당시 유대교는 근·중동지역에서 튼튼한 지지기반을 다져가고 있었다. 비잔틴 세계를 통해 근·중동지역에 소개되고 있던 기독교는 시리아 방면에서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폭넓은 신자 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은 선대 예언자들을 통해 내려왔던 계시들, 즉 토라 Torah(구약)와 인질Injil(신약)의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무슬림의 입장에서 보완, 완성시킨 결과이다.⁴⁾ 하디스는 탈무드의 영향을 받았다. 유대교에서 보이는 일신교의 교리가 이슬람교의 일신교 교리와 일치하는데 중동 지역에 그 토양의 뿌리를 둔 종교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이는 유목민들의 문화에 있어서 목자의 이미지, 즉 단일 인도자의 일사분란한 그리고 권위적인 리더쉽 이미지와 부합된다고 한다.⁵⁾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근·중동의 토양에서 이루어진 종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것 외에도 구약성서의 한 주요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양 종교의 신도들은 상호 깊은 근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양 종교의 토착적 신도들인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적자(嫡子), 즉 이삭의 후손들이고 아랍인들은 그의 서자(庶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는 것이다. 구약 성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갖지 못하므로 그들의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니 그가 이스마엘이다. 그 후에 사라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삭이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내쫓았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메카에 정착하여 아랍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러한 성서의 역사와 관련하여 유대인과 아랍인간에는 누가 더 아브라함의 정통성 있는 후손인가 하는 논쟁과 경쟁 그리고 적대적인 대립과 대결이 끊이지 않게 되고 상호 증오의 씨앗이 뿌려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⁶⁾

유대교의 다른 한 형태로 발전한, 즉 헤브라이즘이 유럽문화 토양과 습합(syncretism)하여 발전한 기독교 또한 이슬람교와 적대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양자는 각각 유럽과 이슬람문화권이라는 지역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⁷⁾

4) 손주영, 『이슬람 칼리파제사: 이슬람 정치사상과 역사』,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96 (서울: 민음사, 1997), p. 21.

5) Adel Th. Khoury, op. cit., p. 19-24; Terry G. Jordan, The European Culture Area,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6, p. 84; Jeremy Johns, Christianity and Islam, in: John McManners, op. cit., p. 188.

6) Adel Th. Khoury, op. cit., p. 39-40; Jeremy Johns, Christianity and Islam, John McManners, op. cit., p. 188.

7) G. Delanty, Inventing Europe. Idea, Identity, Reality, p. 16-29.

2. 이슬람 세계와 유럽인의 정체성 형성

이슬람제국의 우마이야조 시대인 711년에 이슬람군은 지브롤터로 알려진 이베리아 반도의 남쪽 곳을 거쳐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였다. 당시 군 지휘관의 이름이 따리끄 이븐 지야드 Ṭāriq ibn Jiyād였는데 ‘따리끄가 넘은 산’이라는 뜻의 자발 따리끄(Jabal Ṭāriq)에서 오늘날의 지명 지브롤타르(Gibraltar)가 생긴 것이다. 당시 이베리아반도를 게르만족의 일파로서 기독교도들인 비지고트(Visigoth)족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내부에 아리안(Arian)파와 가톨릭파 사이에 분규가 있어서 허약성을 드러냈고 이슬람군에 쉽사리 정복되고 말았다.⁸⁾ 이슬람군은 732년에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인 당시 프랑크 왕국의 투르와 프와티에에 도달했다. 그러나 당시 궁재 카를이 이끄는 유럽연합군(European Army)에 의해 패퇴했다. 이슬람군은 피레네 산맥 이남으로 퇴각하여 오랜기간 동안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였다.⁹⁾

당시의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 이슬람군과 싸워 승리한 732년에 유럽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을 일컬어 유럽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 때에 유럽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조건으로 기독교인이라는 동질성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때 유럽인이 단결해야 된다는 유럽인들의 공동체 의식, 즉 유럽이념의 대 명제는 바로 이슬람의 존재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732년의 이 사건, 11-13세기에 치루어진 십자군 전쟁, 1453년의 오스만제국(터키 이슬람제국)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의 점령 그리고 1492년에 기독교도들이 이슬람세력을 축출해내는 사건, 1529년의 오스만제국에 의한 신성로마제국의 수도 비인(Wien) 포위 그리고 발칸반도 지역의 이슬람세력권화 등은 이슬람에 대항한 유럽인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중대한 사건들이었다. 세계적인 이슬람 연구가 버나드 루이스(B. Lewis)는 강한 유럽의 정체성이 1917년 러시아혁명이 성공하여 소련의 공산제국이 들어설 때 까지 이슬람세계의 존재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1917년 이후부터는 유럽이념의 강화를 위해 결정적인 원동력이었던 이슬람의 자리를 반공이데올로기가 대신한다는 것이다.¹⁰⁾

III. 유럽에 대한 이슬람의 문화적 영향

1. 학문적인 영향

8) 김정위, op. cit., p. 164.

9) J. Fischer, Orient - Occident - Europa, Wiesbaden 1957; 김정위, op. cit., p. 163-164.

10) G. Delanty, op. cit., p. 84-89.

이슬람문화는 철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고대 그리스문화(Hellenism)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철학과 과학 용어의 대부분이 그리스어에서 왔다. 예술과 건축양식 그리고 어느 정도 문학부문에서도 고대 그리스 문화가 이슬람에 끼친 영향은 심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슬람문명은 그리스정교, 로마가톨릭과 더불어 그리스 문화의 계승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물론 이슬람이 받아들인 고대 그리스문화는 비잔틴 기독교의 영향으로 시리아 지역에 접목된 것이다. 이에 비해 서구문명이 물려받은 고대 그리스문화는 중세 암흑 시대 이후 재발견된 그리스·로마의 고전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은 앞서 언급한 이질적인 문명의 요소들을 하나의 용광로에 녹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였다. 이슬람의 종교 문헌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좋은 예가 하디스 속에 묵시록과 탈무드의 내용이 많이 삽입된 사실이다. 본격적인 신학 문헌은 시리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 근원으로서 고대 그리스 사상이 연구되었는데, 이 그리스 사상이 이슬람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¹¹⁾

철학과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 천문학, 지리학, 역사, 물리, 화학, 박물학 및 의학의 발달에 있어서도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컸다. 그리스 서적을 원본에서 번역하거나 시리아어에서 중역(重譯)하였다. 시리아는 그리스정교, 즉 비잔틴권에 속했다. 이 번역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마이야조 시대인 9-10세기의 일이다. 이는 이슬람세계 학문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스 사상을 중시하는 소위 그리스학과 이슬람학자들은 시리아 안티오크 등의 비잔틴 제국 도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의 준디샤프르(Jundishāpūr)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특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번역자들은 주로 시리아 출신의 기독교도나 유대교도들이었다. 이슬람의 유럽내 거점이었던 이베리아 반도와 시칠리아에서도 학문활동이 활발하였다.

압바시야조에 들어서서는 국가적인 번역기관이 설립되었고 번역가의 양성을 위해서 수도인 바그다드에 '지혜의 전당(Bait al-Hikma)'이 창설되었다. 이곳은 그리스의 저술들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와 갈렌(Galen)의 저작,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서들과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 프톨레미의 『알마게스트』 등을 비롯하여 그리스의 많은 저작품들이 번역되었다.¹²⁾ 이러한 이슬람의 학문적 성과는 이베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그리고 십자군 원정의 목표가 되었던 레반트 지역(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등의 경로를 통해 서구에 전해졌고 이는 서구의 문예부흥(르네상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¹³⁾

11) Jeremy Johns, Christianity and Islam, in: John McManners, op. cit., p. 188-189.

12) B. Lewis (김호동 역), 『이슬람문명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96), p. 194.

13) 강동순, “이슬람철학의 중세유럽이동과 그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9, p.

수학에 있어서는 산술 분야뿐만 아니라, 대수학과 기하학의 분야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알 마아문 al-Ma'mūn(813-833재위)시대에 『알 자브르 왈 무까발라』(al-Jabr wa'l-muqābala)라는 적분법과 방정식에 관한 대수학의 저술이 아랍 최초로 무함마드 이븐 무사 알 화리즈미 Muhammad ibn Mūsa al-Khwārizmī에 의해 쓰여졌다. 그리고 유클리드의 『기하학원론』이 알 마아문 시대에 다시 아랍어로 번역되었으며, 아랍의 수학자들은 번역된 기하학의 정리를 재배열하거나 확장시켰다.¹⁴⁾ 이러한 대수학과 기하학에 관한 저술들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의 수학자들에게 알려졌고, 12세기에서 16세기까지의 기간에 유럽의 대학들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천연두와 그 예방에 관한 저술로 유명해진 알 라지(?-920)는 유럽에서 중세 내과의사들 중 가장 위대했던 의사로 전해진다. 또한 이븐 시나(980-1037)는 의학 백과사전을 저술했는데, 이는 13세기에 라틴어로 번역되어, 그 이후 수세기 동안 유럽의 의학을 지배하였다.¹⁵⁾ 의학의 안과 분야와 천문학, 역학, 연금술 등에 영향을 미친 광학연구는 이븐 알 헤이삼의 『광학』이라는 저술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는 눈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조명하여, 실체가 어떻게 해서 눈에 시각적으로 포착되며 또한 이것이 어떻게 뇌로 전달되어 감각기능에 의해 인식되는가 하는 점을 밝히려고 하였다. 이븐 알 헤이삼은 실험 조작을 통해서 빛의 직선적 전달, 반사, 굴절과 같은 성질들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유럽에서는 이븐 알 헤이삼의 저술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으며 광학 지식에 관한 한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았다.¹⁶⁾

알 마아문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많은 저서들이 번역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무슬림학자들에게 일대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는데 이 번역기간을 지나면서 독창적인 무슬림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는 실제 사물과 경험에 대한 이성적 입각한 관찰과 분석 방법론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무슬림학자들의 과학적인 사고를 자극했다. 그 대표적인 학자들을 꼽는다면 알 킨디, 알 파라비, 이븐 시나, 이븐 루쉬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작품들은 이베리아반도 태생으로 이탈리아에서 번역가로 활동한 크레모나(Cremona)의 제라드(Gerard)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되어 서구에 전해졌다. 그리하여 중세 서구의 과학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¹⁷⁾

결과적으로 보아 이슬람 문명은 시간적·공간적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시대적으로는 그리스와 비잔틴의 문명을 받아들여 이슬람의 것으로 용해해내고 공간적으로는 인도·페르시아의 문명을 이슬람의 것으로 제조해서 서구에 전

76; Jeremy Johns, Christianity and Islam, in: John McManners, op. cit., p. 189-190.

14) B. Lewis (김호동 역), op. cit., p. 201-203.

15) B. Lewis (이희수 역), 『중동의 역사』, 까치글방 (서울) 1998, p. 287.

16) B. Lewis (김호동 역), 『이슬람문명사』, p. 206-208.

17) 김정위, op. cit., p. 109.

달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점은 이슬람은 상대적인 관용성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성서를 가진 종교를 인정하였다. 다만 인두세를 내게 하고 2등 국민의 굴레를 씌웠다. 쿠란이나 칼이냐는 많은 부분의 오해에서 비롯된 편견이다. 특히 이슬람세계와 기독교 유럽세계가 대결하는 국면에서 생겨난 적대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¹⁸⁾

2.종교적인 영향

이성에 입각한 과학적인 차원의 학문적 업적이 서구사회에 전달된 것과는 별개의 현상으로 이슬람 주류 신학이 서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슬람 신학의 주류를 기초한 대표적인 두 학자는 알 아쉬아리 al-Ash'ari(873-936)와 알 가잘리 al-Ghazali(1058-1111)인데 이들은 서구의 가톨릭 사상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 알 아쉬아리는 신의 절대성과 인간의 예속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신의 용모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아야 하고 신은 형태가 없다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앙에 관련한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였다. 즉, 그는 개인이 신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신의 예정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설파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신앙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간의 독자적인 판단력에 입각한 행동양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전적인 '신에게 귀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슬람법 샤리아Shari'a(신의 뜻에 이르는 길)는 생활지침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었다. 샤리아는 신의 계시를 통하여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사회공동체의 지침이 되는 법전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가 다같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절명이다. 이에 따르면 이슬람교도공동체의 지도자는 칼리파이고 그는 선임된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알 아쉬아리의 이론체계를 완성한 사람은 알 가잘리인데 그는 『철학자의 부조리』라는 후세에 널리 읽혀진 저서를 저술했다. 이 저서에서 그는 인간 이성에 입각한 사고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20개 항목으로 나누어 철학자들의 논리를 비판했다. 그는 인간 사고력을 극히 불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진리를 세우겠다는 철학자들의 행위를 부조리로 파악했다. 그는 지식위주의 신학, 즉 이성에 입각한 분석중심의 신학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수도(修道)를 통해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만이 의미를 갖는다고 설파했다. 각 개인은 종교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도를 하여 자신의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신을 만나야 한다고

18) Adel Th. Khoury, op. cit., p. 101-102; Jeremy Johns, Christianity and Islam, in: John McManners, op. cit., p. 194.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 가잘리는 이슬람의 신비주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 하였는데, 이는 금욕생활을 근간으로 하는 수도생활에 역점을 두는 신앙생활의 한 형태였다. 이슬람 신비주의를 수피주의Sufiyya라고도 하며, 이는 털 옷(Suf)을 입고 수도를 한데서 연원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신과 합일하는 과정을 디크르(dhikr)라는 종교의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디크르는 명상을 하면서 쿠란 귀절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종교의식이다.¹⁹⁾

알 가잘리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 전체에 속해있고 이 전체 안에서 각 사회 구성원은 상호 작용·반작용을 한다. 각 계층은 아래로는 토지 위로는 정부에 의해 긴박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는 개체가 상호작용하여 결합된 조직체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연합된 하나의 묶음이다. 이 묶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을 표준화시키는 그리고 단선적인 조직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델의 설정이다. 알 가잘리의 모델설정에 따르면 완전한 인간은 무함마드이고 완전한 국가는 그가 세운 종교 공동체, 즉 움마이다. 각 개인은 이 모델을 체화함에 있어서 한치도 어긋나서는 안된다. 그의 저서는 라틴어로 번역되어 13세기 유럽의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철학의 실재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자연법사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각 개인은 보다 더 큰 전체, 즉 한 개인의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보다 더 완전한 것의 일부이며 따라서 개인은 불완전한 것이다. 사회와 국가는 개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전체로서의 최고의 존재이다. 사람의 몸에서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개인은 사회나 국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즉, 그는 집단주의적 생활 태도(collectivistic attitud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통제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것이고 올바른 인간행위에 관한 법칙은 인간에 의해 계속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다. 자연법이란 바로 이미 신에 의해 창조되어 있는 질서를 의미한다.²⁰⁾ 즉, 아퀴나스는 수도생활과 교리에 대한 복종, 금욕생활 그리고 신앙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이성에 입각한 능력과 활동의 불안전성을 지적하였다. 신앙생활을 통해 신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연도(litany)라는 종교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일반 신도는 성경을 주해할 수 없고 이는 오직 신의 대리인인 성직자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리는 16세기 종교개혁 후 변화되었다.

알 아쉬아리와 알 가잘리가 기초한 주류 신학이론에 따를 때 그것은 인간 창의

19) 김정위, op. cit., p. 128-130.

20) Collin Morris, Christian Civilization (1050-1400) in: John McManners, op. cit., p. 215-216; Günther Mensching, Thomas von Aquin. Zum aufklärerischen Gehalt seines Denkens, in: Kurt Flasch/Udo Reinhold Jeck (hrsg.), Das Licht der Vernunft. Die Anfänge der Aufklärung im Mittelalter, München 1997, p. 56-69.

성을 결핍시키고 자유로운 사색정신을 약화시켜 결정론과 권위주의가 득세하는 사회문화를 배태시킬 높은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측면이 이슬람 역사에서 주목되는데 이는 정·교일치의 사회에서 종교사상과 현실관계가 갖는 자연스러운 인과(因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은 사라지고 집단주의(collectivism)적 순응의 의무만이 남게 된다. 다시 말해 기독교 세계가 16-7세기에 종교개혁을 통하여 스콜라철학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 계속된 역사의 전개 속에서 이성에 기반한 계몽주의를 받아들여 새롭게 태어나 19세기 동방으로 진출할 때까지 이슬람 세계에서는 완고한 교리가 지배했다.

이슬람 전통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 즉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성에 입각한 합리주의를 옹호한 교리의 신봉자들이 있었다. 무스타질라파가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이븐 루쉬드는 『부조리의 부조리』를 저술하여 알 가잘리의 이론체계를 비판하고 이성에 입각한 합리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II세의 계몽주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²¹⁾ 그러나 이들은 소수파로 머물렀고 계속되는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전통은 단절되었다.²²⁾

IV. 유럽의 이슬람세계 식민지 지배유산과 현재 유럽 속의 이슬람

유럽은 계몽주의, 시민혁명, 산업혁명,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근대화를 완성하여 이슬람세계로 침투해 들어갔다. 다시 말해 1498년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한 이후 줄곧 이 지역에 대한 유럽의 상업 침투가 심화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슬람권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지배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공 시기에 뚜렷이 가시화 되었다.²³⁾ 이리하여 19세기 전반 내내 유럽은 이슬람세계에서 상업과 외교에 관련해서는 물론, 때때로 내정에 깊이 관여하였다.²⁴⁾

이슬람세계는 과학, 기술, 군사, 정치, 경제, 외교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럽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이를 인식한 중동의 이슬람교도들은 서구 문물을 받

21) Charles E. Butterworth, Averroes. Der Beitrag der arabischen Philosophie zur Aufklärung im Mittelalter, in: Kurt Flasch/Udo Reinhold Jeck (hrsg.), Das Licht der Vernunft. Die Anfänge der Aufklärung im Mittelalter, München 1997, p. 28-35. Averroes는 서구에서 알려진 루쉬드의 라틴명이다.

22) 김정위, op. cit., p. ; Jeremy Johns, Christianity and Islam, in: John McManners, op. cit., p. 190.

23) 하병주, “근대 이슬람 개혁운동”, 『중동연구』, 제17권 (1998), p. 377.

24) Jeremy Johns, op. cit., p. 194.

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특히 교육제도 분야에서 유럽의 요소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에 따른 교육은 이슬람권에서 유럽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중동지역에 많은 서구 모델에 따른 학교들이 설립되었는데 이러한 학교 출신들 중 많은 수가 서구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갔다. 유럽의 여러 교육 분야 중에서 특히 이슬람 세계의 주목을 끈 것은 군사부문이었다. 상당수의 중동지역 학생들이 서구의 육·해군 사관학교로 유학을 가고, 서양인 장교들이 교수 요원으로 초빙되었다. 중동의 무슬림들은 유럽인을 군대의 고문이나 때로는 행정관으로 고용하고, 서양으로부터 무기와 군사 장비 그리고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²⁵⁾ 즉, 이들은 지배적인 위치로 떠오른 유럽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면에서의 개혁이 가장 시급함을 절감하였다. 그런데 근대적인 군대를 창설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갖추고 새로운 훈련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근대적인 군대는 장교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 개혁, 군대 보급공장의 개선과 확충을 위해 경제 개혁, 나아가 군인들에게 봉급을 확실히 보장해 주기 위해 일련의 재정 개혁을 필요로 하였다.

유럽의 무기와 기술 도입,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의 유입으로 인해 유럽의 사상과 문화가 이슬람 세계로 밀려 들어왔다. 유럽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중동 지역에서 상당수 배출되게 되었다. 각종 여행을 통해 개인들이 서구 문화와 접촉하는 횟수가 증대됨에 따라 이슬람 세계에서 새로운 유럽 사상의 보급로가 그만큼 확산되었다. 이는 중동지역인들 사이에 외국어 학습 열풍을 일으키고, 많은 번역물의 출판·보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구 사상과 문화의 유입은 182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주간지와 그 보다 조금 뒤에 나타난 일간 신문들에 의해서 더욱 촉진되었다.²⁶⁾ 반면에 이러한 유럽 문화와 사상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 율라마들은 전통적인 교육을 고수하였다.²⁷⁾ 그들은 이슬람 군과 국가의 근대화를 도모하고, 이슬람세계에 유럽의 과학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개혁 운동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무슬림 세계의 분할된 모습은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의 치열한 식민지 지배를 대변해 주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북부, 서부 그리고 적도 지역과 레바논·시리아를 지배하고, 영국은 팔레스타인, 트랜스요르단, 이라크, 아라비아 만 그리고 인도 반도를 통치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영국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그리고 부루네이를 장악했으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해서야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하였다.²⁸⁾

25) B. Lewis (이희수 역), 『중동의 역사』, 까치글방 (서울) 1998, p. 318.

26) Ibid., p. 331.

27) 하병주, op. cit., p. 377.

이러한 서구 열강들의 침투는 무슬림의 정체성과 자치성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의식을 초래하였다. 이슬람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정치적·경제적·종교적 충돌들이 야기되었고, 이는 동시에 강한 독립 의식을 고취시켰다.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때는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다. 상당수의 알제리인과 튀니스인이 프랑스에 그리고 이라크와 이집트 지역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주하였다. 독일이 제 1차 세계 대전 기에 터키와 동맹을 맺으면서 독일과 터키사이의 교류가 깊어졌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인들은 서독의 재건과정에서 노동력의 부족으로 많은 터키노동자들을 유입시켰다. 그 다음에 중동지역으로부터 온 정치적 망명자들의 많은 수가 유럽에서 피난처를 얻었다. 유럽인이 이슬람교도가 된 경우는 동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며 유럽 내 이슬람교도들은 유입된 사람들이거나 이들의 후손들이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경계선은 많은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이베리아 반도 남단 지브롤터에서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권과 남유럽의 기독교권 사이의 명백한 경계를 보여준다. 이것은 기독교도에 의한 재정복이후 이슬람교도에 대한 ‘완전 추방’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1년 현재 1천 6백만 무슬림들이 유럽에서 살고 있다. 이 1천6백만의 무슬림 인구 중에 6백만명은 최근에 유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특별히 터키, 북아프리카 그리고 파키스탄 등으로부터 왔다. 프랑스는 2백5십만 내지 3백만의 이슬람계 이민을 받았는데 대체로 아랍계다. 독일에는 1백7십만의 이슬람계 이민들이 들어왔는데 대체로 터키인들이다.

디나릭 산맥 지역의 슬라브족 무슬림들인 보스니아인, 불가리아와 마케도니아의 포마크스인, 알바니아인, 터키인, 코카서스에 사는 일련의 소수민족들인 조지아의 압카지족 (Abkhazis)과 아즈하르족 (Adzhars), 남러시아의 체첸족 (Chechens)과 인구쉬족 (Ingushis) 그리고 동유럽 평원의 변방에 사는 타타르족(Tatar)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의 터키족들이 있다.²⁹⁾

현재에도 유럽내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의 적대적인 대결은 계속되고 있다. 가톨릭 크로아티아인들과 정교회의 세르비아인들은 1990년대에 보스니아의 무슬림들과 싸웠다. 유럽의 남부에서는 1990년대 초 기독교도 아르메니아 인들은 아제르바이잔 무슬림들과 충돌하였다. 체첸, 인구쉬 그리고 타타르 무슬림들은 러시아 지배를 거부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세르비아인들은 알바니아계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코소보지역을 인종청소하고자 했다. 그 비극의 상흔은 계속되고 있다. 불가리아는 최근 1989년 현재 350,000명의 터키 무슬림들을 추방했다. 그들 수의 반정도만이 후에 귀환할 수 있었다. 정교권 그리스와 이슬람권 터키 사이에 긴장이 이완되지 않고 두 나라는 1920년대와 같이 1990년대 후반에도 전쟁 일보

28) 황병하, “아랍 민족주의와 아랍통합 운동”, 『중동연구』, 제16권, 제2호 (1997), p. 124-125.

29) T. G. Jordan, op. cit., p. 104.

직전으로까지 갔다. 그리스-사이프러스인들은 터키-사이프러스인들과 대립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아랍세계간의 대립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 대결속에 유럽 또한 연계되어 있다. 범이슬람주의에서 나타나는 이슬람의 유럽에 대한 적의가 심화되고 있고, 서유럽에서 무슬림들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다.³⁰⁾

〈유럽의 무슬림 인구〉 ³¹⁾

나라	무슬림 수	총인구의 무슬림 백분율 (%)	나라	무슬림 수	총인구의 무슬림 백분율 (%)
알바니아	2.275.000	70.0%	네덜란드	350.000	2.3%
벨기에	250.000	2.5%	스페인	300.000	0.8%
불가리아	1.200.000	13.0%	영국	1.500.000	2.7%
프랑스	2/3.500.000	4.4/6.1%	유고슬라비아	4.500.000	21.1%
독일	1.700.000	2.1%	보스니아	2.000.000	.
그리스	120.000	1.2%	코소보	2.000.000	.
이탈리아	150.000	0.3%	다른 지역	500.000	.

V. 맺음말

본고를 통해 확인되는 바 이슬람세계와 기독교 유럽세계는 역사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각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 또는 강화시켜왔다. 그러면서 두 세계는 서로 적대관계를 축적해 왔다. 현재 이들 문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만큼 이들의 적대관계는 세계평화를 위해 위협적이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두 종교 문화권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때 그 만큼 세계 평화의 기반이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두 세계는 서로의 문명·문화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사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제대로 반추되어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인류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0) Ibid., p. 106.

31) Sarah Ansari, *Islamic world in the Era of Western Domination 1800 to the Present*, ed. by Francis Robinson, Islamic World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96), p.120.